



## 말씀으로 보는 2019지역 계획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작년에 세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 기본을 유지하되, 올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 ABC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 최윤환 장로 -



최윤환 장로  
북 아시아 지역 회장



구본경 자매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다카시 와다 장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 지역 우선순위

지역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우선순위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A.**

**Activate**  
활동을 증진한다

**B.**

**Baptize**  
침례를 베푼다

**C.**

**Care**  
보살핀다

## 개인 / 가족 목표

### A. Activate 활동을 증진한다

성명	할 일	기한
1 나, 홍길동 (본인 이름도 가능)	선교사님과 함께 5월 와드 가정의 밤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5월 31일
2 김철수 형제님	와드 헬핑핸즈 봉사 활동을 함께한다. 성찬식에도 초대한다.	7월 31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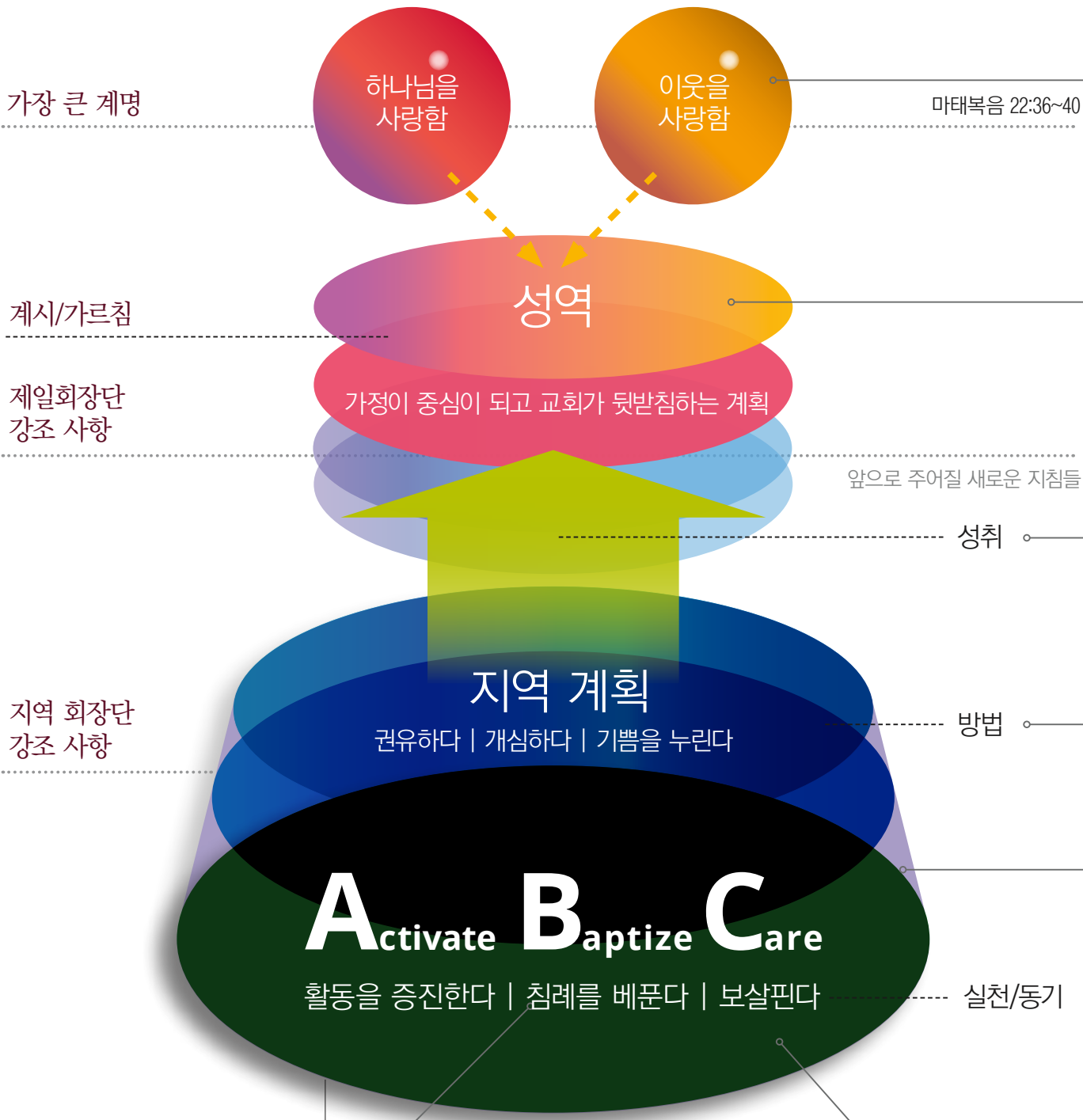
### B. Baptize 침례를 베푼다

성명	할 일	기한
1		
2		
3		

### C. Care 보살핀다

성명	할 일	기한
1		
2		
3		

# 말씀으로 보는 2019 지역 계획



지역 계획 비디오 참조  
<http://bit.ly/2FWQeez>



이 지역 계획에서 ABC 가 강조되는 이유는 ,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영감을  
 지역 회장단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



최윤환 장로  
북 아시아 지역 회장



구본경 자매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다카시 와다 장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역을 행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역, 신권 정원회 변경,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요일 일정 변경.  
**이 모든 것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함께 연결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더 중요한 기적은 우리 내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모습에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지자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계명을  
조금 더 서둘러서 행할 수 있도록  
이 지역 계획이 **우리를 더욱 쉬운 길로 인도해주는**  
**지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더욱 친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비전에 도달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워지고 개인적인 개심을 이룰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2019 년 지역 계획에서도  
개개인이 실천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BC 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 FamilySearch 추억 앱: 추억의 공유, 유대감의 강화

서울 서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 최진현 자매, 최민기 형제 부부



“가족 역사와 관련된 문서, 이야기, 사진, 수집품 등을 항상 눈앞에 둔다면 우리는 간증이 강화될 것입니다.(모사이야서 1:5 참조) 우리는 그것들을 벽에 걸거나 탁자에 놓아둘 수 있으며, 컴퓨터, 아이패드, 휴대 전화에 저장해 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감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주님과 또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리셀 엠 넬슨 회장,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하늘을 열다”, 2017년 루츠텍(RootsTech) 가족 역사 대회)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은 있다. 이러한 소중한 추억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다음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앱이 있다. 바로 ‘패밀리서치 추억 앱’이다. 회원 대부분이 패밀리서치를 통해 가계도를 작성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추억 앱’은 다소 생소할 것이다. 추억 앱을 활용함으로써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 역사 사업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부부가 있다. 서울 서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의 최진현 자매, 최민기 형제 부부의 사례를 통해 패밀리서치 추억 앱을 소개한다.

## 사진, 이야기, 문서, 음성파일로 추억을 영구 보관하다

사실 최진현 자매도 ‘패밀리서치’하면 패밀리트리, 즉 가계도를 작성하는 것만 떠올렸었다. 그러던 어느 날 패밀리트리를 거의 완성한 시아버지(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최창덕 형제)가 종일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추억 앱에 가족의 추억 자료를 저장하느라 분주했던 것이다. 원래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는 최 자매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추억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로 했다.

사용자는 추억 앱에 네 가지 유형의 추억 자료, 즉 사진, 이야기, 문서(pdf 파일), 음성 파일을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각각 네 가지의 유형별로 나누어 자료를 관리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앨범”을 생성하고 각 앨범

성격에 맞게 자료들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모든 추억 자료에 제목을 붙일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가계도에 있는 가족이 해당 추억과 관련되어 있다면 태그하여 추가할 수 있다. 추억 자료를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듯 추억 앱은 조상과 후손이 함께 추억을 공유하기에 안성맞춤인 ‘가족 SNS’이다.



앱에 올릴 수 있는 추억 유형 중 첫 번째는 사진이다. 최진현 자매는 가족 외식, 성전 방문, 부부가 함께 참여한 봉사 활동, 결혼 후 처음 맞는 생일 등 일상의 특별한 순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포착하고 그때그때 사진을 올렸다. “컴퓨터를 통해 패밀리서치 사이트에 접속해 관리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휴대 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빠르게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어요.”

최 자매는 어린 시절에 찍은 사진과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오래된 사진을 모아 스캔 작업을 해서 차근차근 올리는 작업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 친정에 가서 옛날 사진들을 모두 가져왔어요. 저 자신의 추억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조상의 추억을 업로드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연세 드신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자료들이 없어지기 겁쟁이요. 그 전에 추억 앱에 모두 올리려 해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 시간이 나면 항상 추억 앱을 컨답니다.”

최 자매는 어린 시절 사진을 올리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이렇게 전했다. “최근 제가 아기였을 때 알몸으로 찍은 사진을 업로드 했어요. 그런데, ‘업로드 정책에 위배되며 30일 이내에 삭제될 것’이라고 경고 창이 나왔어요. 경고 창을 클릭하니 자료 검토 정책 지침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업로드 하는 내용이 조상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정숙함과 정결이라는 표준에 적합해야 하더라고요.”



앱에 추가 가능한 또 다른 추억 유형은 바로 이야기이다. 돌잔치, 입학, 졸업, 결혼 등과 같은 이벤트나 그 외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싶은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때 작성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이야기에 여러 장의 사진이 있을 때 최대 10장의 사진을 묶어서 올리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면 유용하다.

최민기 형제의 직장에서는 정기적으로 꽃꽂이 수업이 진행된다. 최 형제는 여성들이 대부분인 꽃꽂이 수업에 늘 지원해, 한 달에 한 번씩 꽃다발을 만들어 와 아내에게 선물한다. 최진현 자매는 “남편이 직접 만들어 선물해 주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했고 선물 받은 꽃다발 사진들을 함께 게시했다. “저는 남편이 꽃을 선물해 줄 때마다 사진을 남겨 두었고 최근에 사진들을 모아 이야기를 생성했어요. 혹시 나중에 남편이 무뚝뚝한 중년 아저씨가 되더라도 이 이야기와 사진을 보면서 행복해질 것 같고 후손들에게는 자상한 남편의 본보기로 전해질 것 같아서 벌써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네요!”



세 번째 추억 유형은 **문서**다. 사용자는 일기, 편지, 선교 사업 때 가족과 주고받은 이메일, 말씀 등을 pdf 파일 형식으로 올릴 수 있다. 이 부부는 연초가 되면 신년 계획, 재무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문서화하여 업로드 할 예정이다.

또한 최민기 형제는 선교 사업 때 가족과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모두 추억 앱에 올렸다. “저는 선교 사업 때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모두 추억 앱에 업로드 해 두었어요. 선교 사업 때의 이메일을 다시 볼 때마다 지금은 느끼기 어려운 선교사 시절의 영의 느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일상생활에 지칠 때 큰 활력이 됩니다.”



추억 앱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추억 유형 중 마지막은 **음성 파일**이다. 이들은 결혼 초기에 최민기 형제의 아버지로부터 신혼집 축복과 부부 축복을 받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녹음하여 추억 앱에 업로드 했다. 최 자매는 “시아버님께서 저희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해 주셨는데 힘이 들 때 기도를 다시 들으면 기운을 낼 수 있고 그때 받은 축복을 되새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라고 전했다.

### 조상과 후손의 추억 공유로 유대감이 강화되다

최민기 형제는 추억 앱을 통해 부모님과 조상의 모범과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모님의 추억 앱에는 두 분이 작성하신 육아 일기가 업로드 되어있어요. 그 육아 일기를

순식간에 다 읽으면서 저를 양육해주신 부모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 역시 자녀가 태어나면 육아 일기를 꼭 기록하자고 다짐했어요. 추억 앱에 있는 조상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훌륭한 모범을 배우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후손들 역시 우리 부부의 기록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어요.”

최진현 자매 역시 추억 앱을 활용하면서 조상과의 유대감이 강화되었고 가족 역사 사업을 더 의미 있게 수행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최 자매는 며칠 전에 어릴 적 사진을 업로드 하다가 할머니와 교회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다. 추억 앱에 올리기 위해 옛 사진들을 꺼내 보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던 추억이다. “할머니가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할머니 생각에 그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이 “할머니가 사랑을 많이 주셨네. 시간 내서 주말에 버려 가져.”라고 말해 주었고 할머니를 버려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최 자매는 추억 앱을 통해 받은 축복에 관해 이렇게 덧붙였다. “조상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들이 걸어온 길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조상과 저와의 유대감이 강해지는 것을 느껴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느낌은 아주 특별해요. 이렇게 조상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짐을 느낄 때 조상을 위한 성전 의식과 가족 역사 사업이 더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추억 앱을 통해 ‘영원한 가족에 대한 간증이 강화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



2019 북 아시아 지역 계획 ABC - B-c. 자라나는 세대의 개종을 위한 노력

## 2019 경기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2019년을 맞아 지역의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우선순위 ABC’를 발표했다. 그중 B는 ‘Baptize-침례를 베푸다’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 중 하나는 ‘자라나는 세대(14~25세)에 대한 선교 사업이다.’

지난해 FSY에서 시작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선교 사업은 지난 1월 17~19일에 경기 스테이크가 준비한 특별한 청소년 대회에서도 이어졌다.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 130명 중 비회원 청소년은 14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10%를 차지했다. 개인 사정으로 대회 당일 참석하지 못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등록된 비회원 청소년 수는 20여 명에 달한다. 비회원 청소년의 높은 참가율처럼, 대회에 대한 그들의 소감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경기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가 이처럼 비회원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 ‘자라나는 세대의 개종을 위해 노력한 경기 스테이크의 청소년 대회의 사례를 통해 2019년 지역 계획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본다.

### 비회원 청소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대회

작년 8월, 경기 스테이크 청소년 위원회는 동계 청소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지도자들과 만났다. 이 공식 회의에서 청소년 위원들은 ‘선교 사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청소년 대회를 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스테이크 청남 회장 이범열 형제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청소년 대회 자체를 선교 사업의 기회로 만들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결론과 함께 마련된 경기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의 첫 번째 목표는 ‘비회원 청소년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대회’였다. 그간 ‘선교 사업’을 주제로 한 청소년 대회는 선교 사업 관련 세미나, 전도 및 복음 토론 시뮬레이션 등이 주된 활동이었으며

비회원이 참여하기는 어려웠다. 이와 달리, 대회 준비 위원회는 회원과 비회원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면서도 복음의 원리를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덕에 회원 청소년들은 부담 없이 비회원 친구를 초대하고, 함께 대회 동안 이들을 돌보고, 복음 원리를 나누며 즐겁게 선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평택 와드의 최민재 형제는 친구 두 명과 함께 청소년 대회에 참석했다. 최 형제는 개신교 재단 중학교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인 것이 주변에 알려지며 인터넷에 게시된 잘못된 교회 정보가 학교에 퍼지는 일을 겪었다. 최 형제는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으나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고, 아예 친구들을 교회 모임에 초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몇몇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보고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지만, 친한 친구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최 형제의 계속된 노력 끝에 작년 말에, 청소년 대회의 맛보기 모임 격인 ‘EOS(End of Semester, 학기 말 파티)’ 모임에 친구 몇몇이 참석했다. “친구들이 교회 청소년 활동에 와 보고 우리 교회가 이상하지 않고 훌륭한 교회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쉽게 청소년 대회에도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친구 윤규섭 군과 김정훈 군은 청소년 대회를 통해 오해를 완전히 풀었다. 김정훈 군은 “조 고문님들과 친구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활동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도 청소년 대회를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니 꼭 초대해 주세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민재 형제는 이렇게 덧붙였다. “복음 원리가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활동들이 앞으로 많으면 좋겠어요. 회원들은 친구를 부담 없이 교회 모임에 초대할 수 있고 비회원 친구들은 교회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 만들기’를 주제로 한 대회 1일 차에는 조별 운동회, 또래 모임이 있었다. 특히 ‘또래 모임’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있는 각자의 조에서 잠시 벗어나 동갑내기 친구들과 모여 우정을 증진할 기회를 가졌다.

‘배움’을 주제로 한 대회 2일 차는 게임, 골든벨 퀴즈, 장기자랑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특히 호응을 얻은 활동은 경기 스테이크에서 자체 개발한 ‘RRPG’라는 활동이다. 청소년들이 즐겨 하는 RPG 게임(Role Playing Game, 플레이어가 가상세계 속 하나의 캐릭터를 맡아 모험의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임)을 현실로 옮겨 왔다. 의사, 군인 등의 역할을 맡은 청소년들은 보석을 얻기 위해 조원들과 하나가 되어 몬스터(청소년 지도자)와 사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선택과 책임, 단합, 희생, 정직, 자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등 복음 원리를 배웠다.

수지 와드의 신요섭 형제(고1)는 이번 대회에 친구 열 명을 초대했다. 아쉽게도 종교적 견해 차이를 가진 몇몇 부모님들의 우려로 이 중 여섯 명의 친구들이 참가 신청을 취소했으나, 네 명의 친구들은 대회에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이랑 추억을 쌓고 싶어서 청소년 대회에 초대했어요. 교회 활동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어 보여서 부담 없이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려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모두 엄청 재미있었다고 하네요! 다음에도 청소년 활동에 꼭 오겠다고 할 정도예요.”

### 비회원 청소년의 친구가 되어 줌

경기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의 두 번째 목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유익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선행을 베푸는데 중점을 두도록 돕는 것이었다. 경기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비회원 청소년들의 친구가 되어 줌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선교 사업의 원리임을 배웠다.(마태복음 22:39 참조)

수지 와드 전종인 형제(중2)의 권유로 청소년 대회에 참석한 친구 서현준 군은 적응을 도와준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친구들이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어요. 친절한 친구들을 사귀고 우정을 쌓게 되니까 교회가 좋아졌어요. 원래는 청소년 대회가 끝나면 교회에 더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다녀볼까 생각 중이에요.”

신갈 와드 장미반 회장인 조아영 자매(고2)는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 활동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한다. “교회 활동이 무엇인지 보고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비회원 친구를 교회 친구들에게 소개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초대하면 부담이 줄어들어요. 교회 친구들은 다들 모범적이고 착하거든요. 비회원 친구가 교회의 청소년들을 사귀다 보면 분명 교회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조 자매의 생각처럼 같은 학교 친구 김혜수 양은 청소년 대회를 통해 친절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느끼게 되었다. “저는 원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인데 또래 친구들뿐만 아니라 언니, 오빠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모두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덕분에 교회에 관심이 생겼고 다른 활동에도 가 보고 싶어졌어요.”

청소년 대회에 친구를 초대한 청소년들은 하나같이 앞으로 교회의 다른 모임에도 친구를 계속 초대하겠다고 전했다. 스테이크 청소년 지도자들 역시 즐겁고 유익한 청소년 활동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비회원 친구를 자신 있게 교회에 초대할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 개개인과 스테이크 내의 각 조직이 ‘그리스도와 단합하여 전진함으로써’ 지역 계획을 훌륭히 성취하고 복음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얻길 기대한다.(최윤환 장로, ‘2019년 지역 계획 방송’, 2019년 2월호 리아호나 참조)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8명



**강경민 장로**  
경기 스테이크  
평택 와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선교부



**김다운 장로**  
경기 스테이크  
수지 와드  
부산 선교부



**김영철 장로**  
대전 스테이크  
대전1 와드  
중국 홍콩 선교부



**김정현 자매**  
청주 스테이크  
상당 와드  
부산 선교부



**배성인 장로**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대전 선교부



**변준석 장로**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대전 선교부



**이대건 장로**  
경기 스테이크  
이천 와드  
부산 선교부



**정현우 장로**  
서울서 스테이크  
청라 와드  
부산 선교부

**지**역 소식의 모든 기사와 사진들은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홈페이지: [www.lds.or.kr](http://www.lds.or.kr)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ldschurchkorea/](https://www.facebook.com/ldschurchkorea/)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본부): 02)2232-1441
- 배부 센터: 080-238-8000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경기 스테이크**

회장: 이해근 형제(전임: 유장철 형제)  
제1보좌: 김기남 형제  
제2보좌: 이해택 형제

**서울 동 스테이크**

길음 와드와 도봉 와드가 통합되어 강북1 와드가 됨  
강북1 와드 감독: 한석용 형제(전임: 길음 와드 최익성 형제, 도봉 와드 최종길 형제)  
상계 와드와 중랑 와드가 통합되어 강북2 와드가 됨  
강북2 와드 감독: 최명엽 형제(전임: 상계 와드 정정환 형제, 중랑 와드 안재득 형제)

성전 관련 변경 안내

오후 2시 반 의식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전 안내 전화번호가 02) 330-2700로 변경되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안내

카카오톡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검색하여 친구 추가해 보세요. 교회 소식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